

제16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3. 9. 13.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9월 13일 14:00 ~ 15:41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 원 장

권 대 영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유 재 훈 위 원

유 상 대 위 원

김 용 진 위 원

이 명 순 대리참석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3년도 제15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3년도 제16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 2023년도 제15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2023년도 제16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246호 『(주)오케이파이낸셜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47호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제248호 『동양자산관리대부(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적용기준안에 따라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면제하되 과태료는 부과예정비율에 10% 가중하여 처분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46호부터 제248호까지 3개 안건과 관련하여 (주)오케이파이낸셜대부 등 3개사에 대한 조치를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3개사의 위반행위의 정도, 재발방지 조치 및 향후 제재방향 등이 「영업정지 적용기준」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면제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과태료는 부과예정비율에 10%를 가중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49호 『(주)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0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에 관한 내용이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규정의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1호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51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실권주 매각금지에 관한 유권해석('17.10.12.)에 대해 업계의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변경하여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4,000만 원으로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2호 『(주)OO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3호 『(주)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4호 『OOOO(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5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12.)에 대한 후속조치 및 기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6호 『기흥농업협동조합 등 3개 농협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기흥농업협동조합 등 3개 농협의 금융투자업을 인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7호 『(주)밸류시스템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밸류시스템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을 인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8호 『KCGI(舊메리츠)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KCGI자산운용(주)의 수시검사 결과에 관하여 조치하는 내용

- (위원) 이 사안은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가 중대한 이해상충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임. 따라서 이 사안은 과징금 부과 시 부당이득액 10배 초과분의 감액하는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임. 물론 이러한 조정이 당국의 적절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든다고 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현재의 법문에 따라 병과 원칙임. 물론 실효성 있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예외적 사례가 있기는 함.
- (참여자) 증선위가 수정의결한 취지를 말씀 드리겠음. 먼저 동 위반행위가 회사가 직접적으로 홈페이지에 광고를 한 위반행위가 아님. 두 번째, 당초 산정된 과징금의 경우에 부당이득 대비 그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액의 10배 초과부분을 감액하였음. 또한, 과태료·과징금 병과 부분의 경우 증선위원들은 동일 행위에 대해서 이중부과가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 등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음.

○ (위원) 금융위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도 과징금과 과태료 병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금감원에서 논의된 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병과는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음. 다만, 제재수준이 좀 과도하다든지, 예를 들면 현재 판결에 따르면 병과 하더라도 총합이 과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두 번째는 과태료가 완벽하게 기속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증선위와 금융위 논의를 통해서 재량범위 내에서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실무안을 내렸음.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구체적으로 과징금·과태료를 어떻게 감면할지 순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얻어서 구체적인 감면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 이번 제재 안건은 이 건과 별도로 저희가 논의했던 원칙에도 부합하고 재량범위 내에서 부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수의견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증선위의 심의결과를 존중하는 쪽으로 다수결론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림.

○ (위원) 혹시 다른 의견 있는지?

○ (위원) 금소법상 과징금은 금융소비자들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을 고려하여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입 등을 기준금액으로 50%까지, 징벌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성안이 되었음. 그런데 이번이 금소법상 과징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소법상의 과징금 부과가 금융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사소한 실수 같은 위반사항도 어마어마한 과징금이 부과되어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지금 다른 과징금 부과기준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금소법상의 과징금 양정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는지?

○ (위원) 없음.

○ (위원) ○위원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기록을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58호 안전과 관련하여 KCGI자산운용(주)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과 관련 과징금은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부당이득 10배 초과분을 감액하여 9억 7,400만 원을 부과하고, 과태료는 과징금과 중복 부과되는 부분(1.8억 원)만큼 감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다만, 금융위에서는 실효성 있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지 않고 전액부과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소수의견 부기 조건

- 의결안건 제259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시 필요한 사항 및 제재기준을 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0호 『(주)투게더앱스 등 6개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투게더앱스 등 6개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에 따라 과징금부과, 과태료 면제 조치를 건의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60호 안건과 관련하여, (주)투게더앱스 등 6개사에 대한 수시검사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전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2020.8.26.) 후 시장이 정착되어 가는 중인 상황에서의 첫 검사 건으로 해당 기업의 자본잠식, 연계대출 규모 축소, 적자시현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원안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주)투게더앱스 등

6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감액 부과하고,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1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건강보험료 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2호 『농협생명보험(주)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농협생명보험(주)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예비허가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63호 『패스트포워드(주)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패스트포워드(주)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본허가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64호 『삼성카드(주)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본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삼성카드(주)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본허가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65호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의 대상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담보 범위도 건물붕괴·배관누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로 확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6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 (위원) 적용 자체는 매우 훌륭하고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면 되는데, 법 이름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법이 잘못하면 누더기가 될 수도 있음. 그래서 법 이름을 나중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의견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7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적용하는 내용

- (위원) 금융위 과장님, 이런 건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람. 젊은 분들이나 근로자들이 좋아할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8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지역신협 조합 이사장 선거의 선관위 의무위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9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저축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0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안』, 제271호 『쿠팡페이(주) 및 (주)하나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안』, 제272호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273호 『미래에셋증권(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274호 『(주)그린재킷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안』, 제275호 『신한카드(주)의 규제개선 요청에 대한 심사안』, 제276호 『신한카드(주) 외 8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277호 『(주)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외 5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안』, 제278호 『신한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279호 『(주)오렌지스퀘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280호 『(주)한국신용데이터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281호 『한국예탁결제원 외 18개 증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23년도 제4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비스로,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는 등 금융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

- (위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새로운 혁신으로 두 개가 나온 것 같음. 제271호 안건이 쿠팡페이(주) 및 (주)하나은행 혁신금융서비스인데 이것이 아마 본격적으로 서비스형 बैं킹(BaaS, Banking as a service)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산업(Industry)에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듦.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금융위 차원에서 깊게 들여다봐서 실제로 혁신이 다른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것들을 좀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물론 금융규제샌드박스 팀장님 혼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 부서들과 논의를 해서 혁신이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277호 (주)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외 5개사인데 이것은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망분리 이슈를 진정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보임. 그런 차원에서 금감원과 금융위가 머리를 맞대고, 망분리를 많이 완화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진정으로 클라우드(SaaS) 서비스가 활용되었을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안이나 개인정보(privacy)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화가 되는 시점에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전 심의

□ 보고안전 제24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25호 『'22년말 기준 (주)한국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제16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41분 폐회)